

고하 송진우 선생의 언론활동과 업적

鄭晉錫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고하(古下) 송진우(宋鎭禹: 1890.5.7-1945.12.30) 선생은 한국 언론사상 일제시기 언론의 역사에 우뚝 솟은 높은 봉우리(巨峰)였다. 선생은 언론인이면서 교육자였고 독립운동가였으며 정치가였다. 신문사를 경영하기 전인 1916년에는 중앙학교의 학감을 거쳐 교장을 맡아 후학 양성에 전념하였고, 1919년에는 3.1운동을 계획하고 추진한 민족 지도자 48명 가운데 한 분이었으며, 광복 후에는 한국민주당을 창당했던 정치인이었다. 그러나 선생의 이 같은 다양한 활동 가운데 가장 힘을 기울였고, 빛나는 분야는 언론이었다. 선생은 1921년 9월부터 1945년 12월 30일 흉탄에 쓰러질 때까지 엄혹한 총독부의 탄압 속에서 동아일보를 이끈 주역이었다.

동아일보가 창간되던 당시 옥중에 있었던 선생이 출옥한 후 처음 사장에 취임한 때는 1921년 9월, 31세의 청년이었다. 이로부터 선생은 25년 동안 3 차례에 걸쳐 동아일보의 사장 또는 주필을 맡아 민족 언론을 이끄는 실질적인 견인차였고, 민중의 지도자로 활동하였다. 총독부는 빈틈없는 검열을 실시하여 수백 차례에 걸쳐 기사를 삭제하고, 신문을 압수거나 정간처분을 내리는 등의 행정처분과 병행하여 언론인을 투옥하는 사법처분을 내리기도 하였으나 선생은 옥살이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민족언론의 진로를 제시하고 언론의 정도를 걸으려 했다.

선생은 동아일보 사장에 취임한 직후 만주에까지 사세를 넓혀나갔다. 지국의 조직망을 확장하여 국내만이 아니라 조선족 교포가 밀집한 만주까지 신문의 보급망을 설치했다. 1922년 2월 '재외동포 위안회'를 발기하여 국외에서 고생하는 교포를 향한 애족정신을 드높이는 한편으로 해외 동포들의 조국애를 고취하여 국내외 동포가 일체감을 가지도록 일대 국민운동을 전개하였다.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면서 환등(幻燈) 사진과 강연회를 열어 입장료와 유지들의 회사로 얻은 수익금을 모아 해외동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선생은 주필 장덕수와 함께 모금을 위해 전국의 대도시를 순회하면

서 연설하였다. 이 캠페인은 10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85개 지역을 돌면서 순회 강연 하였고 일반인의 호응과 열성적인 참여로 동원된 청중이 6만 여명에 이르는 대성황이었고, 입장료가 3만 5천 여원에 달하였다. 순회강연으로 모은 수입과 이자 수입 등을 합쳐 동아일보는 북간도, 만주, 중국, 일본, 미국 등지의 해외 교포 2세 교육 사업에 사용할 수 있었다. 선생이 추진한 스케일이 큰 대 사업이 성공을 거둔 것이다. 선생은 기사와 논설을 통해서 동포들에게 민족혼을 심어주는 동시에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여 경영면에서 안정된 토대를 구축하였다.

1922년 7월 일본 니이가다(新潟縣)에서의 한국인 노동자 학살사건과 이듬해 9월 동경에 대지진(大震災)이 일어났을 때 편집국장 이상협(李相協)을 파견하여 조선인 학살사건의 진상을 취재하도록 한 것도 선생이 사장이었던 때의 업적이었다. 이 사건 관련 기사는 일본에서 발행되는 신문도 압수하는 상황이었으나 선생은 총독부의 고위 당국자를 면담하여 보도관제의 해제를 요청하였다.

20년대 초반은 3.1운동의 열기가 식지 않았던 시기였다. 일제의 무단통치기간 동안 억눌려 있었던 민족의 울분이 3.1운동으로 분출한 후 민족의 해방을 위한 새로운 방향이 절박하게 요구되는 시점이었다. 공산주의 사상이 유입되고 노소 세대간의 갈등도 있었다. 가치관의 혼돈, 사회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다.

선생은 1924년 4월 사장 자리를 내놓고 주필을 맡았는데 주필 재임기간에 동아일보는 제 2차 무기정간처분을 당하는 필화를 입었다. 1926년 3월 5일자 신문에 소련의 국제농민회본부가 보내 온 전보문을 게재한 것이 필화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전보문은 3.1운동을 “위대한 날”로 찬양하고 자유를 위하여 죽은 이에게 영원한 영광이 있을 것이며, 현재 감옥에 수감 중인 여러 동지에게 형제적인 사랑의 문안을 드린다는 내용이었다. 총독부는 이 글을 문제삼아 정간처분을 내리는 동시에 고하 선생에게 주필의 책임을 추궁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총독부의 이같은 가혹한 처분은 단순히 문제된 기사 하나 때문이 아니었다. 동아일보의 항일 논조에 오래 전부터 누적된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이 필화로 선생은 1926년 11월 13일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되었다가 이듬해 2월에 출옥하였다.

선생은 출옥 후 1927년 10월 22일 두 번째로 동아일보 사장에 취임했다. 이로부터 1936년 8월의 일장기 말소사건으로 퇴직을 강요당하기까지 9년 동안 사장에 재임하면서 동아일보를 이끌었다.

일제시대 변호사로 많은 민족진영 인사의 변론을 맡았고, 광복 후 대법원장을 역임한 김병로(金炳魯)는 1935년 3월 「삼천리」 잡지에 실린 글에서 신문사 사장으로서 선생의 능력을 3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선생은 필정인(筆政人)이다. 논지가 정연하고 힘과 열이 있는 글을 쓴다는 것이다. 일세의 정론가(正論家)로 추앙하기에 족한 큰 경륜이 있고, 논책(論策)이 있다는 것이다. 선생이 주필이었을 때에 동아일보가 정간 당한 사건이 역설적으로 이를 증명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선생은 재정— 다시 말하면 이재(理財)에 밝다는 것이 김병로의 평가였다.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이재가 아니라 신문경영의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이다. 선생이 처음 사장에 취임하던 당시는 동아일보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나 선생은 이를 타개하였음을 예로 들었다. 대세에 대한 견식이 있고, 이를 요리할 수완이 있기에 동아일보를 경영하면서 장열 대담한 일을 결행하여 어려움을 이겨내었다고 평가했다.

셋째, 그는 민중의 지도자로서 손색없는 언변을 지녔다. 광복 후에 선생이 정치인으로 통일된 민주국가 건설에 이바지할 자질을 검비했던 것인데 아깝게도 흉탄의 첫 희생자가 되어 뜻을 펴지 못하고 말았던 것이다.

1931년 이후 군국주의 일본은 만주사변, 중일전쟁, 그리고 태평양전쟁으로 침략전쟁을 거듭하여 살벌한 암흑기가 닥쳐왔다. 언론에 대해서는 탄압의 범주를 벗어나서 전쟁수행의 도구가 될 것을 요구했다. 조선말의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 이름으로 성씨를 바꾸도록 강요하면서 조선 청년을 전쟁터로 내모는 등으로 민족 말살정책을 강행했다. 일본 국내에서도 언론의 자유는 완전 소멸되었다. 군부의 통제 하에 놓인 상황에서 한국의 민간신문이 항일적인 논조를 지속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군국주의 총칼 앞에 맞서 정면에서 싸울 수 없었던 비극적 시기가 온 것이다. 그러나 신문 발행을 중단할 수는 없었다.

선생은 30년대에 『신동아』, 『신가정』과 같은 잡지를 창간하여 언론기업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 동시에 총독부의 탄압을 피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언론의 사명을 다하려 했다. 문자보급과 농촌계몽을 겸한 「브나로드운동」과 총무공 이순신 장군의 유적 보존운동을 전개하여 전국에서 거둔 성금으로 1932년 6월 충남 아산에 현충사를

중건한 것도 선생이 사장에 재임 중에 추진한 사업이었다.

문자보급, 농촌계몽 그리고 민족정신 함양의 노력을 반영한 문학작품들도 신문에 많이 실리게 되었다. 이광수의 「이순신」(1931년 6월-1932년 4월)은 민족정신을 고양한 작품으로 동아일보의 현충사 증건에 맞추어 연재되었다. 심 훈의 「상록수」(1935.9.10-1935.2.15 연재)는 동아일보 창간 15주년 기념으로 공모하여 당선된 장편 소설인데 동아일보의 ‘브나로드 운동’이 소재가 된 내용이다.

1936년 8월의 일장기 말소사건으로 동아일보는 최장기의 무기정간 처분을 당했다. 사장이었던 선생을 비롯하여 부사장 장덕수, 주필 김준연, 편집국장 설의식 등 간부와 신문제작에 관련된 기자들이 신문사를 떠나야 했다. 정간은 이듬해 6월 1일, 279일만에 해제되어 복간은 되었으나 1940년 8월 마침내 한국어 민간신문은 더 이상 발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선생은 최후 수단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정계와 관계의 유력한 실력자들을 만나 동아일보 강제폐간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폐간을 막아보려 하였으나 군국주의 일본의 정책을 돌이킬 수는 없었다.

동아일보가 폐간되자 선생은 일제의 탄압을 받으면서도 20년 동안 이어오던 신문의 청산업무를 완수하고 1943년 1월 16일 동본사(東本社)를 발족시켜 사장을 맡아 광복의 날을 기다렸다. 마침내 일제가 패망한 후에는 동본사를 발판으로 1945년 12월 1일에 동아일보를 중간(重刊)하여 세 번째로 사장에 취임했다. 선생은 이제 언론활동과 함께 정치 일선에 나서서 한국민주당을 창당하여 수석총무를 맡았으나 뜻을 펴지 못한 채 12월 30일 흉탄에 쓰러지고 말았으니 민족의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었다. 일제치하부터 나라의 자주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정신과 뛰어난 경륜으로 장차 통일의 그 날을 위해 이바지할 시기에 선생을 잃은 것이다.

그러나 일제치하에 선생이 쌓아올린 항일언론의 유산과 광복 후에 기초를 닦은 민주당의 전통은 오늘에도 이어지고 있으며 영원히 이 나라를 이끄는 지표가 될 것이다.